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3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무더운 여름을 말씀과 함께

꿀보다 더한 생명의 말씀을 많이 읽고 개인의 영적 재충전, 신앙성숙과 진보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찬송가 235장)

이곡의 작사 작곡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클라이필드 태생으로 무디의 권유로 음악 전도자가 되어 많은 복음송을 남겼다.

특히 이 찬송의 가사는 용서와 평안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중정, 말씀의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신령적 교제를 추구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자칫하면 더위를 핑계

삼아 성경읽는 것을 멀리하고, 아예 피서로, 지방 및 해외 나들이로 내동댕이치는 우리 신자들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그렇수록 성경과 더 가까이 하는 영적 호흡(기도생활)을 충실히 하고 성경속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묵상으로 받아들이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겠다.

여리를 가든지 성경책을 휴대하고 틈만 나면 성경을 정독하는 습관을 이번 여름부터 실시하면 좋겠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로 요약해 설명하고 있고,

105절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또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행동할 것을 강조한다.

짜증나기 쉽고 내태해지기 쉬운 무더운 지루한 여름 한때를 시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므로 영적 재충전과 아울러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신설교구 위한 전도지침 마련 전도위원회 각 지회에 하달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상규 장로)는 교구신설과 지역변경으로 인한 전도지침을 남녀전도회에 하달했다.

동 지침에 의하면 기존교구는 결원된

임원진을 빠른 시일내에 보선하고, 재정관리는 인원비례로 각지회 남아있는 현금을 배정기로 했다. 그리고 지원처는 현재제로 그대로 유지하며, 지회가

분리되었을시는 같이 협동하여 지원토록 했다.

또 신설교구는(18, 19, 20, 21, 22교구) 지회조직을 새로이 구성하고 새로 회비를 작정하여 후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이달말까지 전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참고사항으로 전도회비 사용방법은



▲ 교회학교 학생들의 92년 여름성경학교 모습



▲ 브라질 합창단이 본교회에 찾아와 찬양을 부르고 있다.

협의회에 40%, 교구부에 10%, 그리고 자체 전도회가 50%를 사용토록 했다.

구인·취업봉사 실업인 선교회서 주관

본교회 실업인 선교회는 본교회 교인중 구직이나 구인을 요청하는 분에

게 취업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일할 분을 필요로 하는 교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할 곳을 찾는 교인들은 실업인 선교회(전교관 406호)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교회 상근조직 개편 1실 2국 13개과로 확대

지난 12일 찬양예배후 본당에서 개최된 임시당회에서 중헌교회 상근조직 개편안이 통과되었다.

새로 개편된 상근조직표에 의하면, 1실 2국 10과 체제에서 관리국이 없어짐과 동시에 교육국이 신설되었으며 관리국 산하의 모든 업무가 사무국으로 편입되어 운영케 되었다. 이에 따라 10개과에서 13개과로 증설되었으며 조달과, 교육훈련과, 도서장학과가 신설되었다.

교회 인사

- ▲ 교역자 사임 및 부서변경
 - ⑩ 송태근 목사
면 찬양위원회 지도, 제1교구 담당 목사, 장년부지도, 배가운동본부 청장년 찬양분과 지도
 - ⑪ 이조웅 목사
면 성경연구원 지도
명 제1교구 담당 목사

- ⑫ 김창수 목사
면 제4교구 담당 목사
명 성경연구원 지도
- ⑬ 김찬근 목사
명 찬양위원회 지도, 배가운동본부 청장년 찬양분과 지도
- ⑭ 김정우 목사
명 장년부 지도
- ⑮ 이종대 목사
명 제4교구 담당 목사
- ⑯ JACOB C. KIM(김철성 전도사)
명 영어예배 부지도

▲ 교구장 임명
정하우 장로
명 제19교구장
(1992. 7. 12. 일자)

☞ 기도원 정기 집회	
· 새벽 5시	월요일~토요일
· 아침 11시	월요일~금요일
· 저녁 8시 30분	월요일~금요일

중헌프리즘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각 부서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지방교회 전도활동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몇 군데 교회학교 부서는 모든 일정이 끝난 곳에 있는가 하면, 다른 부서들은 오는 8월 중순까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마친 부서의 교사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는 간증들이 속출했다.

그동안 기도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생활인가를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학생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간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이 기억나게 하고, 통회자복의 회개기도를 눈물로 했다는 청년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찬송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교사의 간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도 깨닫게 됨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답다고 여름을 피서로 보내지 않고, 말씀충만, 은혜충만, 성령충만의 멋진 기회로 삼고

생활하는 중헌의 온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물은 손이 영생의 축복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지난 주일(7월 19일) 찬양예배 후에는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10여곡의 찬양을 한국어로 불러 갈채를 받았다.

“사랑은 오래 참고...”의 성가곡으로 부터 “거룩한 성” 찬송에 이르러까지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비록 피부색은 다르지만 찬양의 하모니를 통한 그리스도와 의 교제는 두터웠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은 아가페적인 훈훈한

시간이었다.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우리교회도 전기를 아껴써야 하겠다. 각교회학교 예배실 및 교사 사무실에 필요 없이 켜 놓은 전등은 모두 소등하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놓고 빈 공간이 있는 교실들의 형광등도 모두 꺼야겠다.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하는 부서는 열린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필요이상의 전기소모를 막는데 지혜를 모아보자.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신자의 순결

이 말씀은 신자들의 순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라 다른 하나는 이혼하지 말라라 입니다. 이 교훈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제7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5경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의 일곱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순결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처럼 불순하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도 보면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들일수록 ‘나는 커서 우리 엄마 아빠 처럼 되겠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의 흉내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흉내내야 합니다.

고 있는데 첫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3대 제도라고 합니다. 첫째가 바로 이 결혼제도이고 두번째는 국가, 세번째가 교회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가 바로 결혼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성경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이 결혼제도를 두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집을 설계한 디자이너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혼제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야 합니다. 남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란 말이 부모곁에 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독립하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독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만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내버리라. 네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왼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 27~32)

금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보다는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생각에 더 의존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이단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을 통해서 한몸이 이루어 지고, 결혼을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생각하는 것과 목적하는 것이 하나이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언제나 목적이 하나이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이 결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교회에 나가고 남편은 절간에 나가면 절대로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영혼이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서 그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속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병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병예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 농촌도 많이 기계화가 되어서 논밭을 많이 잡니다. 그러나 산골짜기와 기계화가 되지 아니한 그런 곳에서는 지금도 소를 통해서 밭을 갈고 논을 잡니다. 또 산밭은 기계를 가지고 갈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밭을 갈때 소 한 마리가 얼마든지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도 팔지 않습니다. 주로 나귀를 사용해서 밭을 잡니다. 밭을 갈 때 나귀 두 마리가 이랑을 만듭니다. 보습과 병예를 연결시키는데 하나는 말이 고 하나는 나귀면 키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병예를 매게 할때 나귀와 소, 소나 말, 같은 종류가 아닌 다른 종류의 동물들은 병예를 매게 해서 밭을 갈게하지 말라는 교훈이 성경에 나옵니다. 병예를 맨다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바로 병예를 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서 병예를 매지 말라는 말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서 마음도 하나가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불신 결혼이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속담에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에는 세 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자칫하면 거기에 위험성이 많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속담에도 “남편을 잘못 만나도 평생원수요, 아내를 잘못 만나도 평생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 옆을 지나가는 데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하는데 아내가 “아이고 이 뉘어야”라고 합니다. 저들이 젊어

(3면에 계속)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 “성경에서는 불신 결혼을 금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벽옥, 다른 하나는 홍보석, 세번째는 녹보석입니다. 하나님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벽옥은 다이아몬드, 홍보석은 루비, 녹보석은 에머랄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3대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벽옥 즉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시고 티 하나 없으신 기록하신 백옥과 같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님은 홍보석과 같습니다. 빨간 루비와 같이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세번째로 하나님은 녹보석과 같습니다. 에머랄드 그것은 바로 지배의 색깔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3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첫번째는 벽옥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마땅히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

두번째로는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찌니라’ 그 다음에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몸을 이룬다는 말은 성적인 육체적인 측면, 마음의 측면, 영혼의 측면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통해서 몸이 결합되어 집니다. 신자들 가운데 때로는 성 자체를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단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바울당시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결론 두 가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는 기왕에 더러운 것이니 죄나 살것 짓게 내버려 두라”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 육체를 묶어 두어야 한다”는 금욕주의적인 방향으로 갔습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금욕주의의 한 형태는 금식입니다. 금식기도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기도를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 한 곳에 나가야 합니다. 남편은 장로교회에 나가고 아내는 감리교회에 나가고 자녀들은 성결교회에 나가고, 물론 그 교회중에 어떤 교파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달라지면 그들의 생각과 관심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생활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의 목표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떠나야 하고 두번째는 한 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성을 통해서 몸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한 사역에 종사함으로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야 비로소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나오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전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핑계입니다. 정말 전도할 맘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교회 나오게 하고 학습반개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해서 결혼하면 전도가 됩니다. 그러나 대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할 때는 “나의 태양이여 당신은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 평생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결혼이란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결혼하면 이혼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평생 원수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될 때 각각 해야 할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것이 나왔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굴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또 마치 주님처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세계의 생각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했다는 잘못된 개념에서 나온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 생각은 옳은 것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아무리 부족해도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간음해서는 안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다’는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자를 보고서 “야 참예쁜데” 이것이 음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다는 의미는 일상적인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음욕을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덧붙여서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수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짐승과 음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수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성병가운데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수혈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라고 하는 병은 원숭이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원숭이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말은 사람이 원숭이와 음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이것도 점점 돌아다니는데 주로 동성연애자들에게 특별히 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큰죄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모자간에, 부녀간에, 남매간에 혹은 동성간에, 계모와 음행하는 자는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이 범하는 죄악 가운데 음행에 대해 굉장히 큰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나안 7족을 멸한 이유도 음행을 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이유도 음란에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에 Y를 붙이면 소위 말하는 동성 연애자들끼리 가지는 성행위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소돔은 그냥 음행이 아니고 남색하는 자 이런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 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는 것이므로 이 결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는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로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즘보면 이혼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 다. 그러나 성경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이 당시는 남성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가 싫으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 그냥 이혼하지 말고 이혼증서를 써서 준 다음에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을때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음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는 혹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중심의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음행도 잘못이지만 영적인 음행도 잘못입니다.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남자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바로 정부이듯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든 그게 바로 우상이고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이라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육적으로도 음행을 하게 되고 육적으로 음행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나쁜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지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혹시 우리 주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을 가진 신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순결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옛 사람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다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라고 주기를 외우는데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되고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 방법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순결한 생활입니다.

바로잡음

주간충헌 6월 14일자 1면 머리기사 중 10월 부흥회 개최 안내기사 중 강사 김선운 목사는 탕플대학에서 강의한 바 있고, 박은선목사의 제자는 아니며, 세계복음운동 재단 이사장은 영구직이므로 현재도 그 직에 봉사하고 있음을 바로 잡습니다

장로칼럼

.....

한 알의 밀알



엄필성 장로
(중동3부장)

‘죽어야 산다’는 말은 기독교의 기본적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말이다. ‘죽음은 곧 생명이며, 버림은 연음이며, 씩은 결실이다’는 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자세를 확인시켜 주는 좋은 말씀들이다.

무엇을 위한 죽음이요, 버림인가? 바로 ‘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나 우리의 답변이 여기서만 머문다면 실제 삶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 ‘하나님을 위해’ 혹은 ‘주를 위해’라는 말이 분명 옳음에도 불구하고, 혹자가 듣기에는 이같은 표현은 기독교에서 흔히 쓰는 언어의 남발로 이미 식상되어 있을 수도 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여 사랑할까?

바울은 형제에게 범죄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라 하였고 요셉도 상전인 아내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 하며 피하다 결국 옥까지 갔다.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셨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으로 계산되어 진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위와같이 성경을 근거한다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 속에서 나타나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은 온전치 못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위한’ 버림 또는 죽음이라는 말들을 ‘주님 안에서 이웃을 위한’이라는 말로서 다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자신을 버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썩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곧 이웃의 영혼인 것이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세상은 불에 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소멸의 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며 신, 불신을 따라 영생, 영벌이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에 체질이 풀어지고도 이 우주 안의 것으로 남을 것은 인간의 영혼뿐인 것이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지금 년 내 절대배가를 목표로 충헌의 온 성도들이 각자 전도 대상자 특히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 순간의 운동일 수는 없다. 결실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치 밀알을 썩히듯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물질과 시간을 포기하며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이는 장차 열매를 볼 수 있는 소망의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두가지 일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직접적인 복음전도와 이웃을 돌아보며 부족을 채워주는 행함이다. 복음전파가 무시된 후자는 영혼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자선단체의 또 다른 형태나 다름없는 것이니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 돌아봄이 병행되지 않는 복음전파는 수많은 태신자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며 온전히 성장케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일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계명이기 때문이다. (마 28:18~20, 행 1:8)

충헌의 성도들이여,

마지막 날 우리가 만날 주님이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를 기억하자. 이 기쁨은 주님의 양식이었으며 세상 속에 휘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었다는 것을!

〈다음 장로칼럼은 강모용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충현논단

'92 충현북한선교세미나

남북대화와 북한선교(1)

최문현(통일연수원원장)

I. 분단과 통일의 의미에 대하여

현재의 남북 분단은 역사적으로 외세에 의한 한민족의 자존과 자결권의 침해의 결과이다. 그래서 상처받은 민족혼을 치료하는 제2의 광복, 즉 자주통일은 우리 세대의 숙제이다. 분단 대결이 지속되는 한 우리는 또 다른 동족 상잔의 위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통일도 시급하지만 우선 이 땅에 평화의 뿌리를 내리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남북 대화 20년 동안 이산가족들의 편지교환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민족의 수치이다. 인도(人道)와 친륜에 거역하는 인위적 장벽은 이제 누구에게도,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분단의 장기화는 엄청난 민족 동질성의 파괴와 정신적, 물질적 낭비의 근원이다. 교류의 물꼬를 터 쉽고 급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일은 분단을 극복하는 직접적인 수단인 동시에,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로 접근하는 최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하이테크 시대, 지구가족시대를 눈앞에 두고 한반도의 좁은 공간에서 남북의 한 거리가 서로

답을 쌓고 눈을 흘기며 살고 있는 것은 국제화, 선진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의 회복은 세계공동체 창설로 연결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북한 통치자들이 스스로 선전하는) '지구상에 미신과 종교가 없어진 유일한 나라'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양심의 자유,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동포의 통제된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자유분방한 인간의 본성을 인위적으로 개조,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그같은 경직된 통치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통일목적은 남북의 동포가 분단의 역경을 극복하고 저급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하겠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러한 하나의 '통일의 집'에서 북한동포들과 더불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47년간의 분단의 고난을 하나

의 공의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 북한동포들을 너그러운 형의 입장에서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성숙되고 일상생활에서 건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II.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하여

최근 우리의 통일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민족자존을 드높여 주었

고,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사태는 오랜 남북대결과 경쟁에서 우리 체제의 우위를 확정시켜 주었다.

그리고 기적같은 통독(統獨)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의미를 불태워준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고양된 민족자존과 통일의미 그리고 외부여건의 호전만으로는 비극적인 남북한의 대결구조와 단절의 벽을 쉽게 헐어버릴 수 없게 하고 있다.

반세기 가까운 상이한 정치환경 속에서의 생활경험과 6.25 민족상잔의 비극적 경험들이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을 파괴하여 왔다. 남북한이 같은 역사를 가졌다고 하나 북한 주민들은 철저한 세뇌교양의 결과 우리의 역사경험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가졌다고 하나 동일한 말이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해석문제를 갖고 우리는 북한사람들과 20년간 말씨름을 해왔다. 이 답답한 말씨름은 지금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남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문제는 통일 그 자체라고 하기 보다는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대결구조의 단절의 벽을

현재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한이 함께 지켜야 할 규정적, 과도적 '평화질서', 즉 통일지향적 공존관계의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된 두개의 기본 문건, 즉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92. 2. 19)된 이후 회담은 북한측의 이중전략과 우리측의 주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인내성있게 회담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회담의 주요쟁점과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주요쟁점〉
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해석문제(특히 전문 속의 '통일

위장된 종교단체 앞세워 통제된 종교행위 표출
우리의 선한 뜻 갖고 북한사람과 꾸준한 대화필요

허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사이에 꾸준하고 인내심 있는 대화, 긴급하고 실천용이한 분야부터의 교류,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 행위의 억제 등을 통한 신뢰조성, 그리고 상부상조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협력 등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영적으로 배마른 북한땅에 신앙의 물결이 스며들게 하는 복음선교사업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3원칙' 등) ② 각 공동위원회에서 합의, 실천해야 할 부속합의서의 작성문제 ③ '핵사찰규정' 채택문제 '합의서' 및 '공동선언'의 수행원칙 문제 등 〈북측의 주장〉 ①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그들 자의로 해석 (예 '자주'—주한미군철수, '평화'—군축, '민족대단결'—국가보안법 철폐, 공산당 합법화)

(계속)

구역예배

7월 31일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

성경본문 / 에베소서 5: 15~21
요절 / 에베소서 5: 15~16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있는 자 같이 하여 새일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연과 요행의 생활에 습관화된 사람들에게는 '시간관리'라는 말이 별로 새롭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루 24시간을 받아서 생활하다가 사용한 후에 반드시 결산을 해야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간관리'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 사용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간관리의 기본 입장은 무엇일까요?

1. 그리스도인들은 새일을 아끼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새일을 아끼라'는 말은 '계회를 시라'는 뜻입니다. 다시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향락이나 게으름으로 보내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여 세례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율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선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2.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일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는 육체적으로 절제있는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죄로부터 절제함은 물

론이거니와 때로는 취미 생활까지 절제해야 합니다. TV시청, 바둑, 낚시, 오락, 스포츠, 사교적 모임 등을 즐기는 것이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주일예배 및 다른 집회 시간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취미 생활이 아니라 방탕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은 절제에 한걸음 나아가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주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으며 성도간에 피차 교제하는 삶입니다.

3.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용한 시간을 후에 결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문제는 이 시간을 사용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롬2: 6)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하루 하루의 쫓잡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 론

사람은 주어진 삶 만큼의 재산을 살아갑니다. 다시말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해 시간의 양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필수품중 가장 값진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때문입니다.

◆ 적용 및 기도

- 1.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어 잘 선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 2. 훗날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을 생각하면서 순간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